가상자산 시장 커졌지만… 채권·펀드 토큰화는 '제자리'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국내 RWA 누적 발행 규모 6400억
음악 저작권 65%, 미술품 17% 차지
자산군 넓히고 금융 인프라 구축 과제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상품에 접목하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음악 저작권과 미술품에 집중된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채권·펀드 등으로 넓히려면 발행뿐 아니라 유통과 결제, 수탁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했다. 이날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주요국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물 경제에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 500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4만9000개(0.4%) 늘어난 규모다. 반면,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조4000억원) 대비 44% 급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거래 기반이 형성된 것과 달리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실물자산 토큰화(RWA) 누적 발행 규모는 약 6400억원(약 4억5000만 달러)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국내 거래소 상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의 20.6%에 불과한 금액이다. 발행 자산 가운데 음악 저작권이 65%, 미술품이 17%를 차지했다. 채권과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도 국내 시장의 과제는 뚜렷하다. 암호자산 데이터 업체 RWA.xyz의 지난 8월 지표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자산의 총규모는 약 373억 달러, 사용자 수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토큰 발행 이후의 유통과 운용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행한 자산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연결하고, 투자자의 청약·환매와 자산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개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넘어 토큰화 자산의 거래 기반을 연결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쓰비시UFJ은행과 HSBC,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킨넥시스, 소시에테제네랄의 SG-FORGE,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 5곳은 이달 싱가포르에 비영리단체 글로벌 레이어 원(GL1) 기구를 설립했다. 기관별로 분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서 토큰화 증권과 예금, 디지털화폐 등을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통 기술·운영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의 토큰화와 통합 테스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펀드 설정·환매·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펀드넷(FundNet)을 블록체인과 연결하고, 토큰증권지원플랫폼(BTN)을 통해 분산원장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도 2027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단계적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등을 선정했다.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행된 자산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유통하고 청약·환매 등 사후 관리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타이거리서치는 '모나드가 바라본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RWA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시장의 무게중심은 단순 발행에서 토큰화 자산의 유통 및 운용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내 발행 자산은 글로벌 유통 채널이 부재하며,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수작업 및 배치(Batch) 처리 방식이 유지돼 토큰화의 효율성 이점이 퇴색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삼전닉스 목표가 ⬇

목표주가 각각 19%·38% 하향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영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따능AI로 만든 이미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주를 초토화시켰던 모건스탠리가 겨울 문턱에서 또 등장했다.

이번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성장 동력)이 공급 확대(2027년 말 신규 생산시설 가능)로 약화할 것이라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전날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미국 중간선거 이후 핵심 쟁점'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38%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도 기존 38만1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19% 낮췄고, 삼성전자 우선주 목표주가는 30만4800원에서 24만7200원으로 하향했다.

두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모두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

숀 킴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2028년 '실적 절벽'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내년 실적 자체보다는 2028년 이후 성장세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 말부터 신규 생산시설이 가동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반영해 2028년 가동 예정이던 약 5기가와트(GW) 규모의 프로젝트가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 증가율은 2028년 기존 예상치인 약 21%에서 9%로 낮아지고, 2029년에는 20%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는 사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 현재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반도체 가격에도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경쟁 심화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압박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2027~2028년 HBM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기존 78~80%에서 약 70%로 낮추고, 삼성전자의 HBM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약 80%에서 65~7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9% 높인 약 688조원으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13% 상향한 약 468조원으로 조정했다.

2028년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삼성전자는 10%, SK하이닉스는 1% 상향했다.

그럼에도 목표주가를 낮춘 것은 2029년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률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2029~2035년 전체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기존 평균 53%에서 28%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주가는 기업의 기초체력보다 먼저 움직이며, 향후 몇 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둔화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위험을 선반영한다"고 설명했다./김아영 기자 aykim@

금감원, 상장사 회계감리 20년 주기 손본다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약 20년에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은 선별 점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회계 전문가를 만나 이 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3~5년)을 크게 웃돈다"며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영국은 FTSE 350 편입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을 강화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줄어드는 흐름도 들여다본다. 지난해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2억5200만원, 평균 감사시간은 2348시간으로 2022년보다 각각 4.5% 줄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을 선별해 심사·감리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고의성이 큰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부실로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폭넓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의 기본 체계가 바뀌는 만큼 회계법인에 충실한 외부감사를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감사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도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빅테크 쏠림 피한 한투운용 펀드, 수익률 1위

美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
3개월·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가 에프앤가이드 집계에서 3개월·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비교 대상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S&P500 투자 공모펀드 12개로, 클래스 기준으로는 145개다.

9일 기준 환헤지형 H(C-F) 클래스의 수익률은 6개월 5.22%, 연초 이후 9.89%, 1년 13.70%였다. 3개월 구간에서는 같은 펀드의 환헤지형 H(S-R) 클래스가 -1.33%로 1위였다. 같은 기간 유형 평균 수익률은 3개월 -5.76%, 6개월 -2.80%, 연초 이후 3.38%, 1년 5.34%였다.

한투운용은 동일가중 전략이 성과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S&P500 구성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편입해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에 대한 쏠림을 줄이고, 산업재·금융·헬스케어 등 여러 업종에 투자 비중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외국인 채권 투자심리 회복… 8.5조 순매수

금투협,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8조5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15%로 전월 말보다 29.6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10년물은 39.9bp 내린 연 4.008%, 30년물은 40.2bp 내린 연 4.124%를 기록했다. 1년물 금리 하락 폭은 14.5bp였다.

월초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장기물의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 월중에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국내 금리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장기금리가 진정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다시 하락했다. 월말에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 약세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졌다.

/허정윤 기자